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9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이 맑음과 고요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법정 스님 독서 노트 II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III
4. 법정 스님 잔소리
어물어물하지 말라
5. 선재등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해탈 장자에게 묻다
6. 불일암 구석구석
채마밭 파수꾼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가을의 말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중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웁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쓰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9월 1일 발행, 통권 319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이 맑음과 고요를

9월 1일(金) 맑은 뒤 흐림

일주일 만에 산에 돌아왔다.

해바라기가 두 송이 피었다. 반갑다.

꽃망울이 잔뜩 맺혔으니 가을내 뜰을 환히 밝혀

주겠구나. 개울가 밭에 뿌린 씨앗이 올해는 시원찮다.

윗방에 곰팡이가 슬어 균불을 잔뜩 지퍼 놓았더니

방이 더워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아직도 마루가 시원해서 좋다.

방과 마루에 촛불과 기름등잔 해 놓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즐거움. 이 오두막에 전등이 켜지면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밤늦게 가을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

미리 물을 길어다 놓았다.

어제 저녁 예불 마치고 좋은 시간 가졌다.

라벤더 향기 나는 아로마 램프 켜 놓고

명상 음악에 귀 기울이며 침상 위에서 좌선하다.

달님이 소리 없이 새로 바른 창문에 오시다.

플벌레 소리에 시냇물도 숨을 죽이는가.

이 맑음과 고요를 어디서 누릴 수 있으리.

차오르는 맑은 복에 감사 감사하다.

마음 밭에 갖가지 씨앗 있어

비를 맞으면 다 싹이 트지만

삼매의 꽃은 그 모습 없나니

어찌 이루어지고 부서지고 하리.

9월의 첫날 저녁 시간, 텅 빈 충만을 만끽하는 스님의 즐거움

을 우리도 함께하길 바라면서 여기 옮깁니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법정 스님 독서 노트 II

9월의 선물은 에리히 프롬의 해안입니다. 법정 스님은 《소유냐, 삶이냐》를 거듭 읽으면서 중요 대목을 메모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몇 대목을 전합니다.

“*”표시된 글은 법정 스님이 당신 생각을 적은 것입니다.

영혼의 조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¹⁾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을 열고 비우는 것, 자기의 자아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부와 힘을 성취하는 조건이라고 가르쳤다.

사치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부덕²⁾이다. 우리의 목표는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

더욱 적게 가질수록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믿음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신의 이름

신은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미지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랑의 과정

사랑하는 것은 생산적인 능동성이다. 그것은 사람 나무

그림 사상 등에 대한 돌봄, 앎, 반응, 긍정, 즐거움을 뜻한다. 그것은 그의, 또는 그것의 생명력을 커지게 하고 소생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자기를 재생시키고 커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떤 결혼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기초로 하여 시작된 결혼이 다정한 소유로서, ‘두 이기주의가 하나로 뭉쳐진 조합’, 즉 가정으로 변한다.

재물

너희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땅에서는 썩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 간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서는 썩어 먹거나 녹이 슬어 없어지지 않고 도둑이 훔쳐 가지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는 것이다. (성경)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란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도 탐욕을 갖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이 에크하르트의 비집착 개념의 본질이다.

공포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야 한다.

나는 신께 기도한다. 신이 나로부터 신을 거둬 가기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질과 행동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곧 소유물에, 심지어 신에게도 묶이거나 속박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반야사상이다.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III

법정 스님이 전하는 보현보살의 행과 원, 8월에 이어 계속 따라갑니다.

다섯째 행원은 수중공덕, 곧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함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계 불국토의 수많은 부처님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모든 지혜를 위해 복과 덕을 부지런히 닦을 때에,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없는 세월을 지나면서 머리와 눈과 손발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다. 또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갖가지 보살행을 원만히 갖추었고, 가장 뛰어난 보리를 성취했다. 이와 같이 온갖 착한 일을 나도 같이 기뻐하며, 육취회생, 일체중생이 지은 털끝만 한 공덕일지라도 내 일처럼 기뻐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인색하고 웅졸하다. 이웃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다. 시기와 질투는 일종의 열등감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다 부질없는 번뇌다. 그러면 우선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쁨과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남의 흉이나 보는 것은 곧 내 흉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참회하고 발원하는 일이 필

요하다.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 마음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다.

발보리심 하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체를 생각하라. 우리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뉜 가지임을 기억하라.

여섯째 행원은 청전법륜, 곧 설법하여 주기를 청함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의 아주 작은 미미한 것에도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 낱낱 세계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여러 보살들이 에워싸 있다. 그때 내가 몸과 말과 뜻의 갖가지 방편으로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요즘 우리들은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본시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들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이 단절된 이유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듣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들으려면 그만한 정성과 인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옛사람들은 수백 리 길을 걸어서 다녔다.

독서 시간이 짧아지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원인이 된다.

오늘날 가정이 건조해 가는 이유는 대화의 단절 때문이다.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다.

톨스토이의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의 내부에 있는 존재여, 나를 도와주소서.

남을 대할 때 그의 내부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대개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의식의 강한 응어리가 있어 남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제대로 듣고 배우려면 허심탄회한 빈 마음이 필요하다.

일곱째 행원은 청불주세, 곧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함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거나 또는 보살 성문 연각의 배우는 이와 더 배울 것 없는 이와 선지식들에게 열반에 들지 말고 세상에 오래 머무르면서 모든 이웃을 이롭게 하여 달라고 간청한다.”

스승과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하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모시는 일은 핵가족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정철의 시조 한수로 9월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아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떠나간 후면 애닦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10월 호로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7월에 시작된 스님 잔소리, 8월을 거쳐 9월까지 왔습니다.

어물어물하지 말라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창조하는 일이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늘 만들어 낸다. 이 탄생과 창조의 과정이 멎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인생을 짧다고 한다.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 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그것도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배당된 그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야 한다. 무슨 일이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

생명력은 두 갈래 길이 있다. 창조하면 향상되고 파계하면 타락한다.

이 몸을 가지고는 단 일회적인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 버릴 수가 없다.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자기 자신답게,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한 존재인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몫의 삶을 후회없이 살아야 한다.

삶은 예측할 수 없다. 불확실성의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12세기 북송 말기의 선승 환오(圓悟 극근克勤(1063-1135)의 어록에 이런 기록이 있다.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
生也全機現 死也全機現

살 때는 삶에 철저히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그 전부를 죽어야 한다.

삶에 철저히 할 때는 털끝만치도 죽음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 죽음에 당해서는 조금도 생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불교의 생사관이다. 생에 처해서도 살지 못하고 죽음에 당해서도 죽지 못하는 것이 범부의 삶이다. 사는 것도 나 자신의 일이고 죽음도 내 자신의 일이라면 살 때는 철저히 살고 죽을 때는 철저히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살아 있는 동안은 전력을 기울여 활동하고 죽을 때는 미련 없이 물러나야 한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겠지만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 개나리 옥매화 모란과 벚꽃을 보라. 생과 사를 물을 것 없이 그때그때의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생야전기현 사야전기현이다.

스피노자는 “현자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과 똑같은 것이다.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소유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은 죽음은 아직 여기 없으며, 죽음이 여기 있을 때는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문제이고 과제가 아니라 죽음은 아니다. 죽음도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람한테 게으름은 최대의 악덕이다.

악덕은 습관과 함께 시작된다.

습관은 녹이다.

그것은 혼의 강철을 녹슬게 한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

이것이 불타 석가모니의 최후 유훈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누가 내일에 죽음이 닥칠 것을 알겠는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이고 내 과제다. 그럼으로써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생의 질을 높여 갈 수 있다.

선사의 시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겠다.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꽃처럼,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3달에 걸친 스님 잔소리, 끝났습니다.

후회 없이 살라는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넘치지 않습니다.

10월에는 또 어떤 잔소리를 듣게 될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해탈 장자에게 묻다

12년을 찾아 다니다가 마침내 해탈 장자를 만나게 된 선재동자와 우리 일행, 엮으려 절하고 일어서서 합장하였습니다. 선재가 말합니다.

“제가 오늘에야 선지식의 회상^{會上}에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는 크고 좋은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선지식은 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나타나기도 어렵고 받들어 섬기기도 어렵고, 가까이 모시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몸소 뵈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렵고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니,
그것은 모든 부처님을 섬기기 위해서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고,
부처님을 뵈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을 관^觀하기 위해서고,
부처님을 알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평등함을 깨닫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큰 원을 발하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큰 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갖추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여러 행을 이루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신통을 얻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여러 힘을 갖추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법을 지니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살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고,
보살의 선근과 다름이 없기 위해서고,
보살의 바라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고,
보살의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보살의 청정한 원을 발하기 위해서고,
보살의 위신장^{威神藏}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살의 법장^{法藏}의 다함없는 지혜 광명을 얻기 위해서고,
보살의 삼매인 광대장^{廣大藏}을 얻기 위해서고,
보살의 무량 무수 신통장을 성취하기 위해서고,
대비장^{大悲藏}으로 중생을 교화 조복해 마침내 피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고,
신통 변화의 장^藏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자재한 장 가운데서 자기 마음으로 자재함을 얻기 위해서고,
청정한 장 속에 들어가 온갖 모습으로 장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뜻과
이와 같은 낙,
이와 같은 욕망,
이와 같은 희구,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존중,
이와 같은 방편,
이와 같은 구경^{究竟},
이와 같은 겸양으로 성자의 처소에 왔습니다.
듣건대 성자께서는 보살들을 잘 가르치사 방편으로 얻은

바를 밝히시고, 길을 보이며 나루터를 일러 주고 법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자시여,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며, 어떻게 닦아 익힌 것이 빨리 청정해지고 분명해지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때 해탈 장자는 과거 선근의 힘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문수사리 동자의 생각하는 힘으로 곧 보살의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 삼매의 이름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거두어 끝없이 도는 다라니’이니, 그 안에 들어가 청정한 몸을 얻었다.

그 몸에서 시방의 각각 열 세계 티끌 수 부처님과 불국토의 여럿이 모인 도량과 갖가지 광명으로 장엄한 일을 나타냈다. 또 그 부처님들이 옛적에 행하던 신통 변화와 모든 큰 원과 도를 돕는 법과 벗어나는 행과 청정한 장엄을 나타냈다. 또한 부처님들이 등정각等正覺을 이루고, 미묘한 법륜을 굴러 중생을 가르치는 것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 몸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조금도 장애됨이 없었다. 갖가지 형상과 차례가 본래와 같이 머물면서도 섞이거나 어지럽지 않았다. 이른바 갖가지 국토와 갖가지로 모인 대중과 갖가지 도량과 장엄들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갖가지 신통력을 나타내고 법의 길을 세우고 갖가지 서원의 문을 보이셨다.

선재동자는 이 모든 여래의 가르침을 다 보고 들었으며, 부처님과 보살들의 불가사의한 삼매와 신통 변화를 보기도 했다.

이때 해탈 장자가 삼매에서 일어나 말했다.

“선재여, 나는 이미 여래의 걸림 없는 장엄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노라. 내가 이 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올 때 동방의 염부단금 광명 세계의 용자재왕龍自在王 여래응 정

등각을 도량에 모인 대중이 둘러쌌는데, 비로자나장보살이 맨 윗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내가 시방으로 각각 열 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여래를 보지만, 그분들이 여기 오시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가지도 않는다.

내가 안락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뵈고자 하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또 전단세계의 금강광명여래나 연화세계의 보련화寶蓮華광명여래나 묘금妙金세계의 적정광寂靜光여래나 묘희妙喜세계의 부동여래나 선주善住세계의 사자師子여래나 경광명鏡光明 세계의 월각月覺여래나 보사자장엄寶師子莊嚴세계의 비로자나여래를 뵈고자 하면, 이런 부처님을 즉시에 다 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들이 여기에 오시지도 않고 내가 거기에 가지도 않는다.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모두 꿈과 같은 줄 알며, 모든 부처님이 그림자 같고 내 마음이 물 같은 줄 안다. 모든 부처님의 모습과 내 마음이 다 환상 같은 줄 알며, 모든 부처님과 내 마음이 메아리 같은 줄 아니,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뵈온 부처님들이 다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임을 안다.

선재여, 이렇게 알아라.

보살이 불법을 닦아 불세계를 청정케 하고, 미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하며, 큰 서원을 발해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재하게 노닐고, 불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 법계에 두루 가며, 미세한 지혜로 여러 겁劫에 널리 들어가는 것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서다.

10월 호에 이어집니다.

6. 불일암 구석구석



채마밭 파수꾼

사마귀 한 마리가 채마밭을 지킵니다.

봄에 심은 케일 잎은 좋아하는 벌레가 많아 성할 날이 없습니다. 당랑장군이 밤낮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울여름 불일암 밥상은 꽤 허전했겠지요.

오늘은 천둥이 울고 비락이 번쩍이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어깨며 등판까지 흠뻑 젖은 모습이 애처롭기도 합

니다만 수도승의 밥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늠름한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 하는 일이 아니지요. 누구를 따라 하는 짓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성을 밝혀 자연의 길, 우주의 섭리를 한길로 걷는 삼라만상의 모습이지요. 불일암 지키는 채마밭 파수꾼이지요.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가을의 말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뜨락의 석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 속의 소소한 고민을 보내면, 손 편지 답장을 해 드려요.

길상사 경내 가장 위쪽에 있는 '법정 스님 진영각'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 텃마루에 잠시 머물면서 마음을 차분히 달래기도 하고, 방명록에 저마다의 속내를 적어 두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글들을 보며 얼굴을 모르는 이웃끼리 위안을 주고 받는 듯합니다. 방명록과 더불어 지난 4월부터 소소한 고민을 적을 수 있는 '공감 엽서'와 '향기우체통'을 배치해 두었는데, 익명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과 사연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사연을 향기우체부 봉사자들이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은 후 정성껏 답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향기우체부 봉사자들은 남겨 주신 사연을 읽고, 답장을 쓰면서 손 편지라는 매개체가 코로나 19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합 금지로 인해 길상사 진영각에 방문해서 사연을 적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소식지를 받아 보는 분들 중에도 남에게 말 못 할 고민과 사연으로 가슴앓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소소한 고민을 보내 주시면 향기우체부 봉사자가 손편지 답장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내 주실 곳은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롭게 향기우체부 앞, 또는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각종 SNS가 보편화되면서 손 편지가 사라지고, 사람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가는 언택트 시대에 비록 전문적인 상담은 아니지만, 위로받고 싶은 분들에게 온(溫)택트 손 편지로 소중하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았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생태 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생태 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상사를

자신의 화단처럼 가꾸고 꾸미는 일에 뜻을 함께하실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를 전자책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법정 스님의 저서 21권을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된 저서는 <무소유> <영혼의 모음> <서 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물소리 바람소리> <텃 빈 충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오두막 편지> <홀로 사는 즐거움> <맑고 향기롭게> <인도 기행> <진리의 말씀> <숫타니파타> <말과 침묵> <일기일화>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 <달이 일천 강에 비치리> <아름다운 마무리> <산에는 꽃이 피네>입니다.

저서를 읽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며, 예전부터 후원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 홈페이지 재가입 시 후원금이 중복으로 인출되지 않도록 확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전자책을 통해 회원님 저마다 맑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중앙 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60여 가구에 밀반찬 2가지와 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정월대보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럿이 모여 하는 조리 활동은 못 하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금)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모자 뜨기 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9월 4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 판 받습니다. 코로나 성행으로 인해 강화된 중단 지침에 따라 이번 다라니 기도는 비대면으로 봉행되어 신도분들께서 직접 법당에 참석하실 수 없고,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됩니다. / 9월~11월 다라니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2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초하루기도 / 법회 일시 : 9월 7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석 합동 차례 일시 : 9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설법전

보름기도 일시 : 9월 2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9월 24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 9월 3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석 합동 차례

- 선묘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공양을 올리는 추석 합동 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21년 9월 21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우패 번호 1번~600번) / 설법전(우패 번호 601번~)
- 동참금 : 5만 원
-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9월의 길상사 정기법회·기도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기도 | 9월 4일 | 오후 6시~8시 30분 | 극락전 |
| 초하루기도/법회 | 9월 7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추석 합동 차례 | 9월 2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설법전 |
| 보름기도 | 9월 2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9월 24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9월 30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6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